화순군, 백신특구 인프라 구축 속도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조성 보고회
면역세포·유전자치료제 산업 육성
첨단의료복합 단지 조성 필요

화순군과 전남도가 '백신·면역치료 중심의 첨단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화순 백신산업특구의 인프라 고도화,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화순군과 전남도는 최근 화순군청 소회의실에서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 보고회'를 열고 백신·면역치료 중심의 첨단 바이오메디컬 허브 실현에 필요한 발전과제 등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발전과제로 ▲첨단 바이오 신약 개발 인프라 고도화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체계 확립 ▲화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이 제시됐다.

군과 도는 현재 추진 중인 국가면역치료플랫폼과 국가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신산업센터 등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을 구축해 바이오메디컬 스타업 기업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면역세포·유전자치료제 산업 육성형'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를 조성해 첨단바이오 신약 전(全) 주기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첨복단지는 면역세포·유전자 치료제 연구개발과 실험·생산기반인 첨단 신약 개발지원센터, 첨단 신약 생산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화순군이 지난달 29일 전남도와 함께 '화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사업 보고회'를 열고 백신·면역치료 중심의 첨단 바이오메디컬 허브 실현에 필요한 발전과제 등을 논의했다. 〈화순군 제공〉

구복규 화순군수는 "전남도와 함께 그동안 구축해 온 백신·바이오·첨단의료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첨복단지 등을 조성해 명실상부한 첨단 바이오메디컬 허브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백신과 면역치료 바이오의약품을 '화순 대표 특산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우영우'로 뜬 팽나무 함평에도 있다

천연기념물 향교리 줄나무
아름다운 숲 우수상 받기도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인기몰이를 하면서 드라마 속에 등장한 '소덕동 팽나무'가 재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함평에 있는 팽나무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함평군에 따르면 1962년 천연기념물 제108호로 지정된 팽나무·느티나무·개서어나무숲(사진·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산 948-2)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

2016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이곳은 줄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줄나무는 길가나 도로변에 줄처럼 길게 심어져 가로수 역할을 하는 나무들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줄나무는 함평 향교리와 무안 청천리, 두 곳 뿐이다.

이곳 숲은 1만4917㎡(4512평) 면적에 팽나무 10그루, 느티나무 15그루, 개서어나무 52그루와 푸조나무, 곰솔나무, 회화나무 각 1그루가 있으며, 이들 나무의 나이는 대략 350살로 추정되고 있다.

팽나무·느티나무·개서어나무숲은 향교 유림들이 만들었다고 전해져 '향교 숲길'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이곳은 풍수지리학상 함평면 수산봉이 불의 기운을 품고 있어 그 재앙을 막기 위함이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380여년 전 함평 수산봉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산의 기운을 막기 위해 당시 유림 대표 정방, 이양후 등 유림들이 향교리의 다른 곳에서 자란 나무들을 옮겨와 심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함평군 관계자는 "함평을 대표하는 명품 숲길이자 선조들의 지혜를 담고 있는 향교리 느티나무·팽나무·개서어나무숲의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장흥군, 규정 위반 알면서도 산림청과 땅 맞교환 '파문'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
산림청 교환기준규칙 위배
군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장흥군이 추진하는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사업과 관련, 조성부지 일부가 규정을 위반해 승인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장흥군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장흥군의회 산림휴양과 소관 업무보고에서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사업과 관련 군 당국이 2020년 7월 20일자로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임야 80만3107㎡(24만3000평)부지와 산림청 보유한 3만6239㎡(1만962평)가 맞교환 조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했는데 당시 군의회(본회의)가 의결(승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군 당국은 당시 이러한 교환 조건이 규칙을 위반한 것인지 알면서도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대규모 군유지와 소규모 국유지간 맞교환 하겠다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이 공모사업을 통해 총 100억원(도비 50억원, 군비 5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장흥읍 남동리 남산공원 내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부지 7만4000㎡ 가운데 3만 6239㎡가 국유지로 군이 활용해야 할 형편이어서 부득이하게 맞교환을 선택했다는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일부 의원들은 당시 24만평 군유지와 1만여평의 국유지간 맞교환은 산림청 교환기준규칙(6:1 면적초과)에 위배될 뿐 아니라 대규모 군유지를 헌납하면서까지 '역사향기숲 테마공원'을 조성해야 하는지 회의적이라며 문제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군은 산림청과의 맞교환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국유지 3만6239㎡ 가운데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사업부지에 들어가는 1만8584㎡에 대해 2022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년간 우선 무상사용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백광철 장흥군의회 의원은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 군유지와 국유지간 맞교환을 승인해준 것은 군 의회역사에 오점을 남긴 잘못된 처사였다"며 "군 집행부에 원상복구를 위한 교환승인 취소요청 절차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신안 자은도서 전국 최초 '새우난 축제'

이달말까지 1004뮤지엄파크
신안 자생식물도 함께 전시

신안에서 열릴 전국 최초의 새우난(蘭) 축제에 관광객들의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름 휴양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신안군 자은도에서 '2022 여름새우란 축제'가 열린다.

이번 축제는 지난 2일 시작해 31일까지 이어지며 자은도 1004뮤지엄파크 새우란 전시관에서 열린다. 축제에서는 여름새우난초 원종 및 교배종 100여 분이 전시되며 흑산 비비추 등 신안 도서 지역의 자생식물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휴가철 신안의 아름다운 해변을 찾은 여름 휴양객들이 수려한 자생화초의 매력에 마음마저 쉬어가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올해 4월 신안군은 봄 새우난초 개화 시기에 맞춰 '봄 새우란 전시회'를 개최해 봄철 형형색색 신안의 풍광을 찾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바 있다.

만개한 여름새우란. 〈신안군 제공〉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에서 매년 이어오는 봄, 여름 새우란 전시 관람을 통해 새우란을 비롯한 신안군 도서 지역 자생식물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내년 4월 '새우난(蘭) 축제' 개최를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광양시, 365일 비대면 대출·반납 '중마 스마트도서관' 운영

광양시가 지난 1일 365일 24시간 비대면 도서 대출·반납이 가능한 '중마 스마트도서관' 운영을 시작했다.

'중마 스마트도서관'은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 기기에 비치된 도서를 자유롭게 빌려볼 수 있는 생활밀착형 무인 도서관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주차장(1층) 내에 조성됐다.

이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2년 U-도서관 서비스 구축 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돼 진행됐으며 총사업비 1억 3000만원(국비 6500만원)이 투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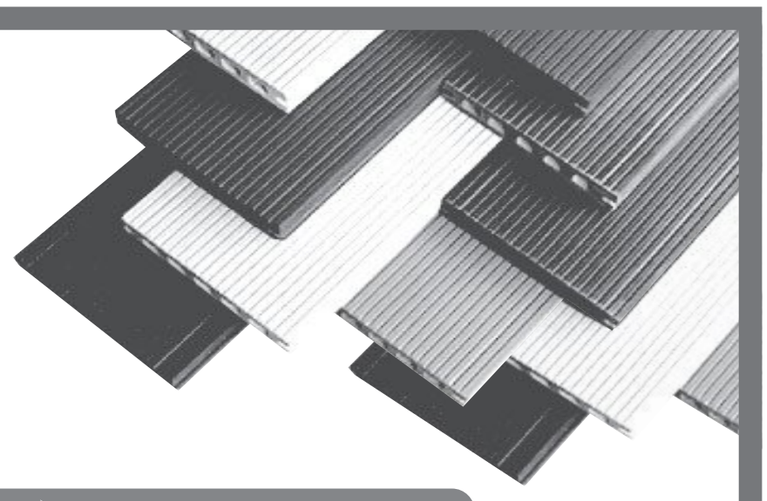
광양시립도서관 통합회원증을 소지한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총 500여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고 1인당 3권, 14일간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광양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립도서관을 찾아 회원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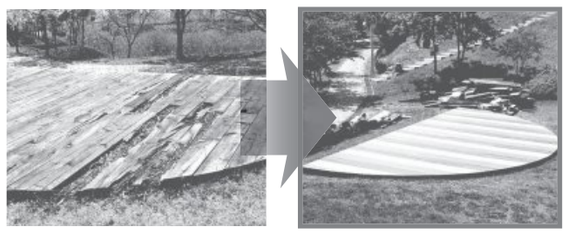
이용 방법은 스크린에서 도서를 선택한 후 책 바구니에 담아 도서관 회원증을 인식하면 투입구에서 책이 나온다. 도서 반납은 반납 메뉴를 선택하고 책을 리더기에 인식시킨 후 투입구에 넣기만 하면 된다.

한편 광양 지역 스마트도서관은 2곳으로 나머지 1곳은 광양읍 전남도립미술관 주차장 옆에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품질인증 Q-Mark

황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ISO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